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9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임 혜 영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임 혜 영

인 준 서

임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과 화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자신감 향상, 적극성 상승,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었으며 화장행동은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학년, 전공, 한 달 용돈 수입, 한 달 화장 관리비용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대생 총 3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년 분포도는 4학년이 가장 많았고 전공을 살펴보면 계열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았다. 한 달 평균 용돈 수입을 살펴보면 6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은 1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의 학년, 전공, 한 달 평균수입,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학년과 한 달 평균 용돈 수입에 따라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변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화장행동의 경

우 학년과 전공 모두 각 집단별로 화장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며 한 달 평균 용돈 수입과 한 달 평균 화장관리비용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0.868, 자아존중감 0.892, 화장행동 0.84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기가치표현과 적극성 상승, 타인의식 요인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 중 동조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살펴보았고,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향상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변화의 즐거움이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동조성, 도구성, 대인지향, 유행성, 주관성의 5개 하위변인으로 분석되었다. 화장행동의 하위변인인 유행성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동조성 요인에는 타인의식과 적극성의 상승이, 주관성 요인에는 적극성의 상승,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이, 대인지향에는 타인의식이, 그리고 도구성에는 자기가치 표현과 변화의 즐거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부정적 자아존중감만이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시대·문화적으로 변해가는 미의 기준의 흐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여대생의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자아존중감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화장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기가치표현, 변화의 즐거움과 타인의식이 화장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여대생이 화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화장 행동은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 및 사회적 적극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에 따라 하는 화장행동의 요인 대다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탈코르셋과 같은 미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여대생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자아존중감	3
2. 화장행동	10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0
1. 연구문제	20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1
3. 측정도구	22
4. 자료분석 방법	24
IV. 연구결과 및 논의	25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5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	26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간의 상관관계	33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35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의 차이	44

V. 결론 4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조사설계 및 연구대상	21
<표 2> 설문지 구성	23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26
<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29
<표 5>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31
<표 6> 화장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33
<표 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34
<표 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7
<표 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	40
<표 10>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43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차이	44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46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 차이	47

I. 서 론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강한 열망과 관심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열망은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뉴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더욱 빠르게 전달되고 있음과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름다움이나 젊음, 건강 등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필요성을 느낀다.

수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가까워지기 위한 외모 관리에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나 정작 아름다움 자체에는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의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 관습, 문화 등의 원인에 따라 달라져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다(김민제, 2011).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은 사회문화적 권력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성영신, 박은아, 2009). 즉, 호감을 주는 이미지가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주며, 적절한 외모 관리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 평가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하중경, 2009). 따라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의 기준에 맞춰진 이상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가 보다 좋은 인상으로 보이길 희망하게 되었다(황윤정, 2007; 강평미, 2016).

화장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과 화장의 어떠한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최수경, 2007). 하지만 화장은 단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며 사회·심리적으로 의의를 갖는 행동이다. 화장은 사회·심리적 기능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신체적인 약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보완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방법 중 하나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외모와 표정은 대화 내용이나 제스처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표현 양식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화장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화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확신, 자부심을 높여주며 화장을 통해서 자기만의 다양성과 개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 인식에서 자신감을 높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한다(김지연, 2012).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여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믿음인 자아존중감은 화장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 행동을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단점을 보강하며 기분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이상과 만족도가 높고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강금미, 2018).

따라서 화장은 단지 외모만을 가꾸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인관계를 지속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화장 이미지(이현정, 김미영, 2006; 김민제, 2011), 화장 만족도(배주윤, 2003; 김도연, 2013), 화장품 선호도와(대아림, 2013; 김수진, 2009) 구매행동 실태(주하나, 2015; 이혜정, 2011; 강미라, 2019) 등 대부분 화장에 대한 미적 기능만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나 화장품 개발, 화장품 구매행동 등 산업분야와 연관된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여대생이 화장행동에 대해 가지는 사회·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화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자기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유두련, 2014,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형성 및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며, 자신을 스스로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 판단을 말한다(Coopersmith, 1981; 여호근, 정호권, 2009, 재인용).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존경(self-respect), 자기 가치(self-worth), 자기 사랑(self-love), 자기 확신(self-confidence), 자아 평가(self-evaluation), 자기수용(self-acceptance) 등과 흡사하게 일컬어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 이다(wells & marwell, 1976; 이미정, 1987, 재인용).

교육심리학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개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김진환, 2000).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이나 감정, 기대 및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미하며(민지유, 2014) 타인과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과 타인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포함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조길용, 2009).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외적 자아존중감과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이 개인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내적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적합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이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대상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Maslow, 1954; 김미형, 2014).

Rosenberg(197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다음에 제시되는 4가지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를 통해 발달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이 자신을 보는 대로 본인을 보게 된다. 둘째,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발달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다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범주를 비교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진다. 셋째, 자아 귀인(Self attribution)을 통해 발달한다. 자신의 행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관찰하여,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내어 자신에 대

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심리적 중요성(Psychological centrality)을 통해 발달한다. 자아 개념 안의 각 요소들(도덕심, 지능, 사회적 지위, 친절 등)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 개인의 핵심적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가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이민선, 2011).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중요한 모티브이자 핵심 요인으로 정신건강 및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인간행동을 결정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한 성격 특징 중 하나다. 또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유진, 2007).

자아존중감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설령 도전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상적이며 즐거운 일로 인지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꿈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며, 도전하기보다는 타인의 비판이나 실패를 회피하는데 급급하여 그 결과로 사회적 불안과 우울을 느끼며 매사에 자신이 없고, 냉소적이거나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김자영, 한창근, 2017).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및 불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홍주우, 1999).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성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중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내재화할수록 사회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태순, 2013).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특성을 관련짓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성취, 행동, 감정, 동기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결정짓고 유지하기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영향력을 미친다(조선영, 2013).

본인 스스로를 ‘장점이 많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맺을 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반면, 스스로를 단점이 많고 의지가 굳세지 못한 나약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대인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박병기, 2001).

또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인 건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신체와 증상 간에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된다(안혜영, 201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적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좋은 결과를 이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개인이 가진 능력과 타인의 수용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한 자기 평가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더 가까우며 주체적이고 당당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2)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가져오는 기본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의 건강한 성격발달, 적응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선영, 2013).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변인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외모관리 행동 및 화장 행동,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외모관리 행동 및 화장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강영숙, 박현정(2009)은 뷰티 살롱을 이용하는 20대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기만족은 헤어, 피부 관리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자기 비하는 헤어, 피부 관리 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비하가 높을수록 헤어, 피부 관리 행동을 적게 하고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헤어 피부 관리 행동을 많이 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주영(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메이크업 관리, 체중 관리, 화장품 관리, 피부 관리, 의복 관리 행동을 더욱 많이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이 피부, 헤어 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의 신체적 외모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 행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한 이승희, 박길순(2011)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자아

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욕이 정의 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환으로 외모관리 행동을 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체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진행한 유태순(2013)은 연구를 통하여 외모 평가와 신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신체 평가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문지윤(2018)은 여자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뷰잉(Viewing) 활동이 신체 비교 및 신체 만족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여대생의 인스타그램 뷰잉(Viewing) 활동이 신체 비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신체 만족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신체 비교에 의해 감소된 신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윤정(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 매력 지각이 체중 및 의복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신체 매력과 사회적 신체 매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정도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나이나 성별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매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은 스스로의 신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신체 외모는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남녀 모두 이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신체적 자아존중감과 전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통해 외모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높은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원(2017)의 연구에서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삶에서 자아 탄력성과 자아 존중감이 삶의 질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아 존중감은 외모, 얼굴, 매력, 몸매와 같은 외향적 자아라고 밝혔다.

또한 이성진(201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욱(201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물론 우울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행동 변화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 행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2. 화장 행동

1) 화장행동의 개념

미(美)의 기준에는 절대성이 있을 수 없다. 아름다움에는 단지 상대성·시대성·주관성·계층성이 서로 섞여 있으며 객관적 절대 기준이 아닌 개인의 주관에 따른 보편적 일반 법칙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뜻에서 화장이란 선천적 자신의 외모를 그 시대와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 선호·선택·선별된 미의 개념에 들어맞도록 보완하여 꾸미는 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이경자, 송민정, 1991).

이처럼 화장 행동은 ‘변신하는 것’으로 얼굴의 특징을 만들어 인상에 변화를 주는 것과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거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승인에 대한 욕구의 기대적인 표현이며, 화장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안진, 2014).

현대 사회에서의 화장은 과거의 단순한 의미에서의 화장과 그 의미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화장은 변화하는 사회의 산물로서 다양한 가치관, 욕구 및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시대의 미의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적인 상태나 정치적 기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사회적 수단으로써 행해진다. 이처럼 예전의 화장은 아름다움을 향한 본능적인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 파악되던 것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다양한 목적에 의해 화장을 하고 화장 행동의 효용에 대해 느끼고 있다(조은, 2003).

또한 최근 화장은 무조건적으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유행 안에서 각자 나름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메이크업과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특별히 유행하는 스타일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공존하는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하는 화장은 단순히 외향적으로 얼굴을 가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미의식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김은희, 2003).

이와 같이 화장은 자신을 보다 본인답게 나타내주는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의도적인 표출 방법으로 화장에 대한 관심은 맨얼굴과 다른 자신을 연출하고, 자신감을 얻어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이며(박은희, 2015), 단순히 얼굴을 가꾸는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상응하여 토탈 코디네이션화된 이미지 화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감을 부여하고 심리적인 충족감과 이미지 변신은 물론 외모의 평가를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를 거두어 화장이 자기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전달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배주윤, 2003).

이처럼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추구해온 정신적 가치임을 생각할 때, 화장은 단순히 신체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적인 특성, 성격과 가치관, 태도, 내면적 성숙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화장은 여성의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그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여성들은 화장을 통해 자기 모습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복합적인 자기 이미지를 경험하고자 한다. 복합적 차원이란 예를 들어 실제 자신과 인공적인 자신(real self vs. artificial self), 일상의 자신과 휴식의 자신(day self vs. night self), 그리고 일하는 자신과 즐기는 자신(work self vs. fun self), 여성적인 자신과 비여성적인 자신(feminist self vs. nonfeminist self) 등으로 그날의 기분 상태나 자신에 대한 역할 정의, 그리고 활동의 목표나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화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박은아, 2003).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화장 의미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여성의 화장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화장이 여성의 성해방과 지위 향상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장이 오히려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환원시키고 성 상품화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화장을 터부시하는 시대에도 매춘부와 같이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들 사이에서 화장은 그들의 전유물로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화장한 여성’이라함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반면 이렇듯 부정적인 화장에 대한 인식으로 과감한 스타일과 화장법 등은 오히려 지배질서에 반대하는 거부와 저항의 의미로서, 여성의 주체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화장이 억압과 해방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이현주,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수단의 화장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며 화장행동은 본인이 가진 목적과 필요에 의해 알맞게 이용되는 도구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화장행동의 선행연구

현대 사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끊이지 않는 대인관계의 연속이다. 이에 개인의 외모 또한 본인의 자아에 관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성들이 적절한 자기 제시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의복'과 '화장'인데 그중 화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현정, 김미영(2006)은 화장 추구 이미지에 따른 화장 행동의 차이에서 화장 추구 이미지 집단을 세련된, 품위 있는, 현대적인, 낭만적인, 자연적인, 젊음의 6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자연적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중요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초화장부터 피부, 눈썹, 입술, 눈 화장과 같은 모든 단계의 화장 행동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배주윤(2003)은 신체상의 한 부분인 얼굴에 화장 행위를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 대인 관계 시에 어떠한 행동 성향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화장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자기도취적, 수용적, 책임적,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화장을 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대인관계 성향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화장 행위의 만족감은 대인관계 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금미(2018)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 매력 지각이 화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여대생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인식 요인과 내면화 요인이 높을수록 화장 행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이 평가되거나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현상인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자 신체적 장점은 강조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연출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혜경, 나종연(2015)의 여성 소비자의 화장 행동 분석을 통한 화장 맥락의 이해에서 여성들은 외출의 목적과 공간 범주에 따라서 화장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화장의 타인 지향적,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특유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평균 3가지 정도의 화장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은 외출 장소, 대중교통 이용 여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차별화되며 격식을 갖춰야 하는 외출일 경우 의상의 고려와 풀 메이크업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경우 풀 메이크업과 의상의 조화가 가장 일상적인 화장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다른 경우는 매 상황에 따라 화장법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기범, 차영란(2006)은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화장의 의미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성숙이나 어른의 상징으로서 화장 행동을 이해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인상관리 및 자기표현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우리(2016)의 단계별 화장 행동이 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단계별 화장이 높을수록 외모 결점, 심리적, 자신감 상승, 사회성 및 효과성 또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20대 보다 30대의 단계별 화장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자기관리를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와 시대를 타고난 바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색조화장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외모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특성과 의복 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에서 문혜경(2002)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신체 만족도와 외모 관심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화장도가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 행동과 영향 변인 연구에서 백경진, 김미영(2004)은 연령에 따른 화장 행동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화장 행동의 요인 중 유행 지향은 20대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인관계지향 요인은 40·50대 집단에서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20대의 경우 유행에 가장 민감하고 개성이 강하며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유행 지향 요인을 중요시하고, 40·50대의 경우 인생의 절정기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때이기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복 관여도가 높을수록 화장 행동에 있어 더욱 긍정적이며 능동적이고 유행 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화장 행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상 속에서 공적인 자아와 개인의 가치관이 장소와 상황에 맞춰져 표현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화장은 외모를 통해 자아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를 나타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화장행위는 자신을 구성하고 개선, 변형하려는 목적과 함께 매우 의례화(ritualized)되어 있기에 여성 스스로 화장의 목표나 의미를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다. 또한, 의례적이며 일상적으로 하는 화장의 동기는 사회 비교 과정에 요인이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미디어에 제시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변인들을 본인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즉,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인 준거집단은 현실에서 만나는 접촉 집단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만나지 않는 열망 집단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이들과 꾸준히 비교하며 그 결과로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느끼고 외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화장이 실제로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행동이 된다고 할 수 있다(박은아, 2003).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혹은 필요성에 따라 화장을 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인 동기나 욕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들 스스로의 자기 개념이나 성 정체감에 의해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능을 포함한 사회적 표상으로 내면화된다. 이처럼 내면화된 사회적 표상은 다시 화장을 통해 단점을 숨기려고 하거나, 건강해 보이려고 하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욕구 등의 형태로 동기화되거나 기능적으로 순환한다(김양하, 김기범, 차영란, 2007).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자기 개념이나 미에 대한 욕구나 동기, 그리고 성숙의 의미는 모두 사회적으로 규정된 혹은 공유된 미의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여성들은 화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화장 행동은 다시 여성의 성 정체감과 자기개념의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기범, 차영란, 2006).

사회심리학에서 화장은 비언어 의사전달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화장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동 이상으로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임을 뜻한다(이화순, 2002). 이처럼 화장 행동이 처음에는 단순히 미적인 욕구 충족이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작하였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민정, 2010).

또한 화장은 사람이 타인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싶다’라는 승인 욕구의 기대 때문에 평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가 있으며, 화장하는 것으로서 자존심을 유지하고 대인적인 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여 문화 기준과 연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인상의 조작 작용을 크게 한다(임희정, 2016). 따라서 화장은 타인과의 조화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장의 심리적 효과는 자기 충실감, 혹은 일종의 정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인적인 행동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며, 당사자 자신의 자신감과 만족도의 상승이다(이원진, 2003).

계속해서 화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도달하도록 얼굴을 보완해 주는 미적 기능,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고 자신다움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여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써 사회적 적극성을 얻는 심리적 기능,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자기평가 및 이상적인 자아상을 구현하기 위한 자기 확인 강화 기능, 그리고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대인적인 자기상을 관리하여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의 기능이 있다(김명리, 김주덕, 2005).

화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 의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조화

와 자신을 위한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화장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높인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기준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고, 스스로의 특징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화장은 얼굴이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최수경, 2007). 이처럼 화장은 다차원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구성적이거나 방어적인 자기관리 혹은 인상관리(자기 제시)의 차원과 사회적 소통의 도구 차원, 여성성이나 역할과 관련된 자기 정체성 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기범, 차영란, 2005).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적 관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선희(2008)는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에서 화장이 개인의 개성보다는 화장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행이나 미용 정보를 본인 스스로의 개성으로 동일화하려는 경향으로 여성의 미의식이 개성적, 독창적이라기 보다는 유행의 사회 환경적 지배와 모방의 간섭과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임미연(2005)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해 자기만족 지향과 자의식이 높은 집단의 여성들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 자의식과 화장 행동이 독립적으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습지향의 화장 행동보다 자기만족 지향의 화장 행동에서 자의식이 높은 집단이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차영란(2006)은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에서 여성들은 화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및 자신감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역할로서의 자기표현 및 인상관리의 전략으로 인식했다.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2007)은 한국 문화에서 여성에게 화장은 어떠한 의

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사회적 성 정체성과 아름다움의 수단으로서의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화장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의 수단과 성숙, 여성성과 사회적 승인이라는 기능과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고 화장 자체에 대한 욕구보다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된 사회적 신념이 화장 행동을 설명해주는 마음의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윤(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은 내적 이미지 관리 행동을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예의를 지키고 격식을 차리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외적 이미지 관리 행동에도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도구성과 과시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인 지향, 동조성이 심리적 기대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단순히 외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가꾸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며 동시에 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심리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및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자아존중감, 화장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의 영향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3월 8까지 총 12일에 걸쳐 총 445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그 중 418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의 많은 부분이 누락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연구 분석에 395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 조사설계 및 연구 대상

조사대상	여대생
자료수집 방법	자기기입법
조사기간	2019년 2월 25일- 3월 8일
배포 및 회수	-배포한 총 설문지: 445부
	-회수된 설문지: 418부
	-제외된 설문지: 23부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395부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 및 일반적 특성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53 문항이었다.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이화순(2002), 조기여(2003), 조안진(201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적극적 상승, 자신감 향상,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의 5가지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23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 조선영(2013), 최미혜(2010), 조향숙(200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2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10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화장행동

화장행동은 최정순(2015), 백경진, 김미영(200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20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일반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의 <표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설문지 구성 예) 적극성 상승, 자신감향상,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
자아존중감	2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설문지 구성 예)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화장행동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설문지 구성 예)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전공, 한 달 평균 용돈, 한 달 평균 화장관리비용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실시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차이를 검증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인 여대생들의 학년분포는 1학년 24.8%, 2학년 25.1%, 3학년 24.8%, 4학년 25.3%로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25.6%, 자연과학계열 25.1%, 예체능계열 25.1%, 기타계열 24.3%로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았으나, 계열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1달 평균 용돈수입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4.6%,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0.1%,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9.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21.8%,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9.2%, 60만원 이상 25.1%로 6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1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72.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2.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 30만원 이상 1.2%로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N=395, %)

변인	항목	빈도(N)	백분율(%)
학년	1학년	98	24.8
	2학년	99	25.1
	3학년	98	24.8
	4학년	100	25.3
전공	인문사회계열	101	25.6
	자연과학계열	99	25.1
	예체능계열	99	25.1
	기타	96	24.3
한 달 평균 용돈수입	20만원 미만	18	4.6
	20만원~30만원 미만	40	10.1
	30만원~40만원 미만	76	19.2
	40만원~50만원 미만	86	21.8
	50만원~60만원 미만	76	19.2
	60만원 이상	99	25.1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285	72.2
	10만원~20만원 미만	88	22.3
	20만원~30만원 미만	17	4.3
	30만원 이상	5	1.2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하는지, 곧 타

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맥스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3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50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분석방법의 특성상 각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데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들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가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Kaise-Mayer-Olkin (KMO)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 이면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의 차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999.357(\text{Sig}=0.000)$ 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값이 0.889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34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10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9.802%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68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94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0.845%)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다,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이는 것 같다, 화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신감 향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6.561%)는 화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다, 화장을 하지 않고 타인을 만나는 것은 실례라 생각된다, 화장은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1.698%)은 만나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장소에 따라 화장 스타일을 바꾼다, 화장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화장에 신경을 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가치 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0.624%)는 화장을 하면 내향적인 성격도 다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화장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밝아진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극성 상승’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10.074%)는 화장을 한 내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화의 즐거움’으로 명명하였다.

이 5가지 요인 적재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1	2	3	4	5		
자신감 향상	화장심리23	0.797	0.181	0.149	0.145	0.090	0.719
	화장심리3	0.796	0.193	0.181	0.098	0.111	0.725
	화장심리6	0.714	0.194	-0.018	0.156	0.333	0.684
	화장심리20	0.707	0.202	0.108	0.359	0.053	0.684
타인의식	화장심리4	0.116	0.886	0.098	0.082	0.072	0.820
	화장심리14	0.211	0.817	0.057	0.152	0.041	0.741
	화장심리9	0.273	0.745	0.111	0.020	0.187	0.677
자기가치 표현	화장심리7	-0.089	0.009	0.805	0.067	0.175	0.692
	화장심리21	0.405	0.123	0.621	0.164	0.087	0.599
	화장심리16	0.370	0.199	0.587	0.111	0.030	0.534
적극성 상승	화장심리1	0.205	-0.017	0.142	0.811	0.130	0.738
	화장심리11	0.235	0.269	0.112	0.718	0.138	0.676
변화의 즐거움	화장심리10	0.315	0.111	0.035	0.089	0.815	0.784
	화장심리13	0.037	0.148	0.364	0.218	0.703	0.698
고유값		2.918	2.318	1.638	1.487	1.410	
분산(%)		20.845	16.561	11.698	10.624	10.074	
누적(%)		20.845	37.406	49.104	59.727	69.802	
신뢰도(Cronbach's α)		0.852	0.819	0.598	0.568	0.594	
전체신뢰도			.868				
KMO와 Bartlett 검정			KMO=.889, $\chi^2=1999.357$ $p<.000$				

2) 자아존중감의 차원

자아존중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795.199$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값이 0.91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56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7.46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92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28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38.161%)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자질(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에게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남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 (29.307%)는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이 2가지 요인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1	2		
긍정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2	0.825	0.260	0.749
	자아존중1	0.820	0.253	0.737
	자아존중5	0.779	0.122	0.622
	자아존중6	0.729	0.378	0.674
	자아존중9	0.668	0.332	0.556
부정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7	0.174	0.822	0.706
	자아존중8	0.245	0.806	0.710
	자아존중10	0.307	0.761	0.673
	자아존중3	0.558	0.577	0.645
고유값	3.435	2.638		
분산(%)	38.161	29.307		
누적(%)	38.161	67.468		
신뢰도(Cronbach's <i>a</i>)	0.870	0.828		
전체신뢰도	.892			
KMO와 Bartlett 검정	KMO=.915, $\chi^2=1795.199$ $p<.000$			

3) 화장 행동

화장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chi^2=1433.369$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73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713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9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78.290%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45로 나타

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9.564%)은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그들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신경 쓴다,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내가 속한 집단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조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6.413%)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메이크업 방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5.112%)은 메이크업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인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4.134%)는 유행하는 화장품을 보면 사고 싶다, TV나 SNS에 나오는 모델이나 연예인의 최신 메이크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행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13.066%)는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관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다섯 개의 요인 적재값이 ± 0.7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화장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1	2	3	4	5		
동조성	화장행동18	0.828	0.144	0.112	0.092	-0.074	0.733
	화장행동20	0.820	-0.072	0.087	0.221	-0.060	0.738
도구성	화장행동9	0.803	0.190	0.130	0.037	-0.117	0.713
	화장행동4	0.100	0.896	0.058	0.190	0.003	0.853
대인지향	화장행동8	0.114	0.867	0.087	0.218	0.120	0.835
	화장행동10	0.102	0.058	0.904	0.123	-0.006	0.845
유행성	화장행동17	0.184	0.089	0.854	0.185	0.096	0.814
	화장행동5	0.163	0.176	0.190	0.826	0.009	0.775
주관성	화장행동13	0.172	0.353	0.169	0.742	-0.032	0.734
	화장행동7	-0.132	-0.023	0.027	0.233	0.852	0.799
	화장행동14	-0.090	0.142	0.059	-0.277	0.815	0.772
고유값		2.152	1.805	1.662	1.555	1.437	
분산(%)		19.564	16.413	15.112	14.134	13.066	
누적(%)		19.564	35.978	51.090	65.224	78.290	
신뢰도(Cronbach's α)		0.613	0.835	0.787	0.724	0.590	
전체신뢰도				.845			
KMO와 Bartlett 검정				KMO=.735, $\chi^2=1433.369$		$p<.000$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였다.

다음 <표 7>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의 상관관계분석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적극성 의 상승	자기 부족감 보완	타인 의식	자기 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적극성 상승	2.83	0.90	1										
자신감향상	2.90	1.03	.521**	1									
타인의식	2.21	0.93	.335**	.486**	1								
자기가치 표현	2.92	0.97	.407**	.463**	.334**	1							
변화의 즐거움	3.78	0.88	.415**	.442**	.336**	.443**	1						
긍정적 자아존중감	3.93	0.66	-.001	-.106*	-.105*	.013	.078	1					
부정적 자아존중감	3.68	0.88	-.109*	-.179**	-.1.00*	-.086	-.082	.662**	1				
유행성	2.76	1.11	.329**	.343**	.371**	.425**	.464**	-.004	-.032	1			
동조성	1.84	0.79	.321**	.225**	.290**	.244**	.185**	-.043	-.106*	.360**	1		
주관성	4.17	0.62	-.011	.056	.046	.155**	.141**	.094	.088	-.035	-.216**	1	
도구성	3.09	1.15	.276**	.280**	.239**	.572**	.444**	.015	-.061	.485**	.250**	.105*	1
대인지향	2.39	1.00	.291**	.413**	.827**	.287**	.316**	-.043	-.011	.388**	.305**	.069	.215**

분석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기가치표현, 적극성상승과 타인의식 요인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 중 동조성에 대해서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7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4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29, ‘자신감 향상’은 -.104, ‘타인의식’은 -.074, ‘자기가치 표현’은 .027, ‘변화의 즐거움’은 .113이었다.

자신감 향상의 표준화 계수 값은 -.161로 나타났고($p < .05$),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표준화 계수 값은 .150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5$). 이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24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3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21, ‘자신감 향상’은 -.139, ‘타인의식’은 -.015, ‘자기가치 표현’은 .001, ‘변화의 즐거움’은 .003이었다.

자신감 향상의 표준화 계수 값은 -.162로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 향상 시키고 개인이 가진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대생이 본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에 자신감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었으며 화장행동을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단점을 보강하며 기분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한 강금미(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자 아 존 중 감	(상수)	3.803	.157		24.228	.000***	
	긍정적 자아 존중감	적극성상승	.029	.045	.039	.646	.519
		자신감향상	-.104	.043	-.161	-2.425	.016*
		타인의식	-.074	.041	-.104	-1.797	.073
		자기가치표현	.027	.041	.039	.657	.512
		변화의즐거움	.113	.045	.150	2.529	.012*
		R=.201 R ² =.040 F=3.260 **					
	부정적 자아 존중감	(상수)	4.159	.209		19.908	.000***
		적극성상승	-.021	.060	-.021	-.350	.727
		자신감향상	-.139	.057	-.162	-2.442	.015*
		타인의식	-.015	.055	-.016	-.270	.787
		자기가치표현	.001	.054	.001	.023	.982
		변화의즐거움	.003	.060	.003	.055	.956
R=.180 R ² =.033 F=2.619 *							

*P<0.05,**P<0.01, ***P<0.001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화장행동 중 유행성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3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81, ‘자신감 향상’은 -.004, ‘타인의식’은 .219, ‘자기가치 표현’은 .244, ‘변화의 즐거움’은 .353이었다.

타인의식의 경우 표준화 계수 값이 .185로 나타났고($p < .001$), 자기가치 표현의 표준화 계수 값은 .214로 나타났으며($p < .001$), 변화의 즐거움은 .281로 나타나($p < .001$) 유행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동조성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14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208, '자신감 향상'은 $-.029$, '타인의식'은 .167, '자기가치 표현'은 .084, '변화의 즐거움'은 $-.008$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성 상승의 표준화 계수 값은 .237로 나타났고($p < .001$), 타인의식의 표준화 계수 값은 .198로 나타나($p < .001$) 동조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주관성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5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83$, '자신감 향상'은 $-.003$, '타인의식'은 $-.003$, '자기가치 표현'은 .096, '변화의 즐거움'은 .090이었다.

적극성 상승의 경우 표준화 계수 값은 $-.122$ 로 나타났고($p < .05$) 자기가치 표현의 표준화 계수 값은 .152로 나타났으며($p < .05$), 변화의 즐거움은 .129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적극적 상승,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 화장행동에 5%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도구성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37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03, ‘자신감향상’은 -.077, ‘타인의식’은 .031, ‘자기가치 표현’은 .570, ‘변화의 즐거움’은 .326이었다.

자기가치 표현의 표준화 계수 값은 .483 나타났고($p < .001$), 변화의 즐거움의 표준화 계수 값은 .251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p < .001$), 이 2가지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도구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대인지향 요인에 대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68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적극성 상승’에 해당하는 계수는 .002, ‘자신감 향상’은 .001, ‘타인의식’은 .869, ‘자기가치 표현’은 -.006, ‘변화의 즐거움’은 .050이었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타인의식이 표준화 계수 값이 .813으로 나타나($p < .001$)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화장을 통한 변화의 즐거움과 자기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화장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연출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도적인 사람은 유행을 선도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실하며 자신의 얼굴을 캔버스처럼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감이 강한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이상과 만족도가 높아 유행을 앞장서서 이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한 문혜경, 유태순(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화장행동	유행성	(상수)	.016	.222		.070	.944
		적극성상승	.081	.064	.066	1.280	.201
		자신감향상	-.004	.061	-.004	-.072	.943
		타인의식	.219	.058	.185	3.759	.000***
		자기가치표현	.244	.058	.214	4.232	.000***
		변화의즐거움	.353	.063	.281	5.578	.000***
			R=.557	R ² =.310	F=34.991***		
	동조성	(상수)	.749	.176		4.254	.000***
		적극성상승	.208	.050	.237	4.131	.000***
		자신감향상	-.029	.048	-.038	-.604	.546
		타인의식	.167	.046	.198	3.623	.000***
		자기가치표현	.084	.046	.103	1.830	.068
		변화의즐거움	-.008	.050	-.009	-.160	.873
			R=.385	R ² =.148	F=13.555**		
	주관성	(상수)	3.804	.145		26.195	.000***
		적극성상승	-.083	.042	-.122	-2.006	.046*
		자신감향상	-.003	.040	-.005	-.083	.934
		타인의식	-.003	.038	-.005	-.082	.935
		자기가치표현	.096	.038	.152	2.541	.011*
		변화의즐거움	.090	.041	.129	2.165	.031*
			R=.206	R ² =.042	F=3.450*		
도구성	(상수)	.340	.219		1.555	.121	
	적극성상승	.003	.063	.003	.053	.958	
	자신감향상	-.077	.060	-.069	-1.290	.198	
	타인의식	.031	.057	.025	.541	.589	
	자기가치표현	.570	.057	.483	10.034	.000***	
	변화의즐거움	.326	.062	.251	5.241	.000***	
		R=.613	R ² =.376	F=46.835***			
대인지향	(상수)	.292	.135		2.163	.031*	
	적극성상승	.002	.039	.002	.058	.954	
	자신감향상	.001	.037	.001	.014	.989	
	타인의식	.869	.035	.813	24.488	.000***	
	자기가치표현	-.006	.035	-.006	-.172	.864	
	변화의즐거움	.050	.039	.045	1.311	.191	
		R=.828	R ² =.685	F=169.145***			

*P<0.05, **P<0.01, ***P<0.001

3)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화장행동 중 유행성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741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0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050,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65이었다.

이에 대한 표준화 계수 값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 .030, 부정적 자아존중감 -.05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유행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동조성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83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1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058,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24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 .049, ‘부정적 자아존중감’ -.124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만 5% 유의수준에서 동조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주관성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139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058,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32이었다.

화장행동 중 주관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각 표준화 계수 값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098, 부정적 자아존중감 -.127으로 나와 모두 p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그러므로 화장행동 중 주관성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화장행동 중 도구성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163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0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170,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65이었다.

화장행동의 도구성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098, '부정적 자아존중감' -.127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도구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대인지향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617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0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097,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36이었다.

화장행동 중 대인지향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101, '부정적 자아존중감' .076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모든 요인이 대인지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성향이 높은 사람은 주변 친구들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과 비슷한 스타일의 화장을 하려고 신경 쓰거나 노력하는 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유행성	(상수)	2.807	0.336		8.358	0.000	
	긍정적자아존중감	0.050	0.112	0.030	0.448	0.655	
	부정적자아존중감	-0.065	0.085	-0.052	-0.771	0.441	
	R=.039 R ² =.002 F=0.300						
동조성	(상수)	2.066	0.238		8.671	0.000	
	긍정적자아존중감	0.058	0.080	0.049	0.731	0.465	
	부정적자아존중감	-0.124	0.060	-0.139	-2.067	0.039	
	R=.112 R ² =.013 F=2.501						
화장행동	주관성	(상수)	3.821	0.186		20.582	0.000
		긍정적자아존중감	0.058	0.062	0.063	0.942	0.347
		부정적자아존중감	0.032	0.047	0.046	0.691	0.490
	R=.100 R ² =.010 F=1.984						
도구성	(상수)	3.032	0.346		8.756	0.000	
	긍정적자아존중감	0.170	0.116	0.098	1.467	0.143	
	부정적자아존중감	-0.165	0.087	-0.127	-1.887	0.060	
	R=.096 R ² =.009 F=1.822						
대인지향	(상수)	2.639	0.302		8.732	0.000	
	긍정적자아존중감	-0.097	0.101	-0.065	-0.960	0.338	
	부정적자아존중감	0.036	0.076	0.032	0.474	0.636	
	R=.050 R ² =.002 F=0.484						

*P<0.05, **P<0.01, ***P<0.001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의 차이분석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학년의 경우 자신감 향상에만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화장의 자신감 향상 기대효과가 높았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 자기심리적기대효과		적극성 상승	자신감 향상	타인의식	자기 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
전 체		2.83	2.90	2.21	2.92	3.78
학년	1학년	2.66	2.61	2.15	2.90	3.63
	2학년	2.78	2.93	2.18	2.86	3.79
	3학년	2.96	2.97	2.26	2.92	3.82
	4학년	2.91	3.07	2.24	3.00	3.88
	F	2.271	3.722*	.322	.391	1.405
전공	인문사회계열	2.84	2.88	1.99	2.82	3.73
	자연과학계열	3.01	2.87	2.20	2.99	3.77
	예체능계열	2.81	2.96	2.48	2.99	3.74
	기타	2.65	2.88	2.16	2.89	3.89
	F	2.733*	.166	4.780**	.770	.631
한달평균 용돈수입	20만원 미만	2.50	2.29	2.04	2.61	3.50
	20만원~30만원 미만	2.91	2.63	2.28	2.80	3.68
	30만원~40만원 미만	2.72	2.97	2.21	3.00	3.68
	40만원~50만원 미만	2.73	2.87	2.21	2.91	3.75
	50만원~60만원 미만	2.90	2.94	2.15	2.82	3.84
	60만원 이상	2.96	3.06	2.25	3.06	3.93
	F	1.545	2.484*	.245	1.149	1.346
한달평균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2.73	2.79	2.12	2.77	3.70
	10만원~20만원 미만	3.01	3.12	2.31	3.20	3.95
	20만원~30만원 미만	3.41	3.32	2.86	3.57	4.09
	30만원 이상	3.40	3.95	3.33	4.13	4.10
	F	5.708**	5.359**	6.783***	10.289***	2.810*

전공의 경우 타인의식($p < .01$)과 적극성 상승($p < .05$)은 전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타인의식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일 높았고 자연과학계열의 학생들이 자신감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용돈수입의 경우에도 60만 원 이상이 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만원 미만이 2.50으로 낮은 자신감 향상을 보여($p < .05$), 용돈 수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의 경우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모든 요인에 대해 화장관리비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학년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만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4학년이 4.03으로 가장 높고 1학년이 3.78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내, 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과 한 달 평균 화장관리비용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달 평균 용돈수입의 경우에도 긍정적 자아존중감만 용돈 수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즉, 수입이 낮은 여대생보다 수입이 높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전 체		3.93	3.68
학년	1학년	3.78	3.60
	2학년	3.89	3.65
	3학년	4.00	3.83
	4학년	4.03	3.64
	F	2.768*	1.287
전공	인문사회계열	4.01	3.79
	자연과학계열	3.91	3.68
	예체능계열	3.86	3.67
	기타	3.91	3.57
	F	.895	1.096
한 달 평균 용돈수입	20만원 미만	3.70	3.49
	20만원~30만원 미만	3.81	3.53
	30만원~40만원 미만	3.85	3.68
	40만원~50만원 미만	3.83	3.60
	50만원~60만원 미만	3.93	3.77
	60만원 이상	4.15	3.78
	F	3.621**	1.007
한 달 평균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3.93	3.70
	10만원~20만원 미만	3.89	3.61
	20만원~30만원 미만	4.04	3.75
	30만원 이상	4.12	3.45
	F	.400	.382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학년과 전공의 경우 각 집단별로 화장행동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달 평균 용돈수입의 경우에도 주관성만 용돈 수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한 달 평균 화장관리비용의 경우 주관성을 제외하고 모든 화장행동에 대해 화장관리비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전 체		2.76	1.84	4.17	3.09	2.39
학년	1학년	2.87	1.92	4.12	3.03	2.35
	2학년	2.74	1.84	4.17	3.09	2.44
	3학년	2.76	1.80	4.14	3.20	2.42
	4학년	2.69	1.79	4.24	3.05	2.35
	F	.479	.566	.689	.421	.224
전공	인문사회계열	2.58	1.69	4.25	2.88	2.22
	자연과학계열	2.73	1.89	4.18	3.03	2.40
	예체능계열	2.86	1.98	4.14	3.28	2.61
	기타	2.90	1.79	4.11	3.19	2.34
	F	1.710	2.594	.896	2.344	2.612
한달평균 용돈수입	20만원 미만	2.25	1.46	3.89	2.83	2.22
	20만원~30만원 미만	2.84	1.88	4.19	2.88	2.49
	30만원~40만원 미만	2.68	1.88	4.28	3.04	2.38
	40만원~50만원 미만	2.79	1.80	4.12	3.17	2.30
	50만원~60만원 미만	2.78	1.91	4.03	2.97	2.34
	60만원 이상	2.85	1.83	4.28	3.29	2.52
	F	1.032	1.029	2.878*	1.335	.712
한달평균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2.54	1.77	4.16	2.90	2.29
	10만원~20만원 미만	3.31	1.97	4.14	3.55	2.56
	20만원~30만원 미만	3.79	2.02	4.32	3.71	3.12
	30만원 이상	2.60	2.47	4.70	3.90	2.90
	F	17.943***	2.822*	1.705	10.523***	5.444**

V.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화장에 어떠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아존중감과 화장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년 분포도는 4학년이 가장 많았고 전공을 살펴보면 계열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았다. 한 달 평균 용돈 수입을 살펴보면 6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은 1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학년, 전공, 한 달 평균수입, 한 달 평균 화장 관리비용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학년과 한 달 평균 용돈 수입에 따라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변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화장행동의 경우 학년과 전공 모두 각 집단별로 화장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며 한 달 평균 용돈 수입과 한 달 평균 화장관리비용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각 변인의 요인분석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자신감 향상,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적극성 상승, 변화의 즐거움 다섯 가지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두 가지 요인으로, 화장 행동은 동조성, 도구성, 대인지향, 유행성, 주관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0.868, 자아존중감 0.892, 화장행동 0.84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자아존중감, 화장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기가치표현과 적극성상승, 타인의식 요인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 중 동조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살펴보았고,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향상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변화의 즐거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사람의 자아존중감은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업, 외모, 학력, 경제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므로, 화장을 함으로써 얻는 사회·심리적 효과는 단지 화장행위에 대한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동조성, 도구성, 대인지향, 유행성, 주관성의 5개 하위변인으로 분석되었다. 화장행동의 하위변인인 유행성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동조성 요인에는 타인의식과 적극성의 상승이, 주관성 요인에는 적극성의 상승, 자기가치 표현, 변화의 즐거움이, 대인지향에는 타인의식이, 그리고 도구성에는 자기가치 표현과 변화의 즐거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아존중감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본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낮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여 본인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얻으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화장 행동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화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기가치표현, 변화의 즐거움과 타인의식이 화장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여대생이 화장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화장 행동은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 및 사회적 적극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부끄럽고 초라해 보인다거나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등 타인과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이 아닌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요인의 대다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탈코르셋과 같은 미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현상이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 문화적으로 변해가는 미의 기준과 마케팅 및 유통 구조에 큰 파급력을 가진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받는 외모 관련 산업에 현재 여대생들의 화장심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을 두어야 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현숙 (2000),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금미 (20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매력지각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명주 (2014), 10대 여자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에 따른 화장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1-12.
- 강영숙, 박현정(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대구지역 20대 고객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5(1), 363-373.
- 고민정, 김선형(2017), 메이크업 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3(5), 964-970.
- 고선형 (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희망을 매개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아라 (2018), 성인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비가치, 화장행동, 화장품 구매행동,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민주 (2012), 여고생의 화장행동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선 (2018), 중학생의 감각추구성향, 화장행동, 헤어행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혜경, 나종연(2015), 여성 소비자의 화장행동 분석을 통한 화장 맥락의 이해, 소비문화연구, 18(3), 147-179.
- 김경희, 서은혜(2011), 미용성형 후 화장행동의 심리적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1(1), 15-23.
- 김기범, 차영란(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 (美) 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

- 적 의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07-123.
- 김기범, 차영란(2005), 여성의 화장과 미, 미간행 연구.
- 김도연 (2012), 청소년의 화장관심, 화장행동, 화장만족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리, 김주덕(2005),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31(1), 127-134.
- 김미형 (201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과 자아존중감이 신체활동과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우, 이유리(2012),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소비자학연구, 23(2), 351-382.
- 김성희 (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 IT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2007), 화장의 자의식적 특성 분석과 화장마음의 사회인지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13-229.
- 김육 (2017), 대학생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생명연구, 46, 383-422.
-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2003),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변천에 관한 연구 : 태평양화장품 장업지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자영, 한창근(2017),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9(2), 247-269.
- 김지연 (2012), 화장행동과 얼굴 이미지 및 상황에 따른 수정화장과의 관계,

-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박진희(2007), 무용전공자의 신체이미지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1(51), 63-82.
- 김진환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학지사.
- 김철순, 문정혜(2005), 20대 여성의 화장 행동과 화장품 선호도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43(11), 59-71.
- 김태수 (2018), 주거환경이 중년기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2001),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불안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 (2000), 20 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化粧文化) 비교연구, 복식 , 50(1), 85-96.
- 나윤영, 송선영(2014), 여중생의 외모관심도가 화장행동 및 화장품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예술포럼 , 18 , 221-233.
- 남달리 (2018), 자아위협 이후 의인화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의도 연구 -자아존중감과 자기가치수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선옥 (2011), 대인지향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혜경 (2018), 탈코르셋 시대의 못생길 권리, 오늘의 문예비평, 215-219.
- 류지효 (2005), 한국 여성의 전통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재우 (2012), 청소년의 비만, 우울, 자아존중감 및 신체 이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2), 119-146.
- 문지윤 (2019), 여자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뷰잉 (Viewing) 활동이 신체비교

- 및 신체만족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경 (2002), 심리적 특성과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지유 (2014), 항공객실승무원이 자각하는 영어 능력 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직장 내 대인관계 상관관계연구 : 국내외 항공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향, 박옥련(2003), 여대생들의 화장행동과 의복행동 간의 요인별 비교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 12(4), 519-528.
- 박병기 (2001), 집단배척학생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1, 1-21.
- 박선희 (2008), MBTI 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3), 196-203.
- 박수진, 박길순, 김서연(2006), 여대생의 메이크업에 대한 행동 및 의식 조사 연구-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4(4), 87-99.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4(2), 105-127.
- 박은정, 정명선(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 18(4), 717-730.
- 박은희, 구양숙(2011), 화장품 소비자의 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 및 구매행동, 패션비즈니스 , 15(5), 28-42.
- 박은희 (2015),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 유형에 따른 자의식과 화장행동, 패션비즈니스, 19(1), 106-121.
- 박정원 (2017),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삶의 질의 매개효과와 학년의 조절

- 효과, 기초조형학연구, 18(5), 195-209.
- 박정혜 (2002), 추구의복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따른 색조화장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3), 자기표현,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주윤 (2003), 화장행위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진, 김미영(2004), 화장행동과 영향 변인 연구-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892-903.
- 서은혜 (2011), 자기에 성향,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영신, 박은아, 이주원, 김운섭(2009), 아름다움의 심리적 권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461-488.
- 송현영 (2013), 여중생의 화장에 대한 인식 및 화장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영 (2011), 문화적응, 사회적지원, 자존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K 항공사 외국인 객실 승무원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호근, 정호권(2009), 전시컨벤션업 종사원의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1(4), 7-22.
- 유두련 (2014),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에 따른 친환경태도와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5(3), 183-206.
- 유태순 (201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1), 173-173.

- 유태순 (20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7(3), 260-269.
- 윤세라 (2009), 20대 직장여성이 경험한 화장의 의미와 화장품 구매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봉 (2003), 정인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자, 송민정(1991),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 17, 221-245.
- 이미정 (1987), 아버지의 자기 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선 (201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서 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영 (2015), 여대생들의 자의식에 따른 화장행동, 추구이미지 신체만족도, 타자의식과의 관계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0), 화훼장식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중년주부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우울감 해소,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운 (2010), 이미지 관리행동이 심리적 기대효과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진 (2017), 노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1077-1091.
- 이승희, 박길순(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1075-1087.
- 이연희, 류광록(2004), 화장문화 고찰[1],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0(4), 50-62.
- 이영숙 (2010), 중년여성의 자의식 수준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체미용예술학회지, 11(3), 27-40.

이우리 (2016), 단계별 화장행동이 성인여성의 외모만족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진 (2003),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정, 이정임, 유희, 정재은(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49-167.

이주미 (2017), 중년남성의 미용건강관리행동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영 (2012),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 김미영(2006), 화장추구이미지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30(5), 800-806.

이현주 (1999),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미연 (2005), 화장행동과 헤어칼라 및 자의식이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121-135.

임희정 (2016), 화장이 노인여성의 심리적 변화와 치유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숙 (2010), 여성의 외모관리와 체형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진수 (2003), 실버여성의 화장태도 및 화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 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정 (2014), 여고생의 피부 및 메이크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득, 이종석(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 정미영 (2018),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정 (2010), 여고생들의 화장행동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20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2006),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비합리적 신념의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길용 (2009), 노인대학 참여자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 (2013), 성인여성의 생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안진 (201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 (2003), 여성의 화장 행동이 대인 관계 및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하나 (2015),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자기

-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예원 (2015), 20-30대 여성들의 화장품 유행선도력에 따른 세분집단의 특성 비교 연구-심리적특성, 상호작용활동, 정보탐색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숙 (2001), 여대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실태분석,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 9(3), 315-347.
- 천성문 (2014),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1(2), 251-271.
- 최덕신 (1992),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친구관계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7),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 57(8), 60-74.
- 최수경 (2009), 얼굴만족도와 화장의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15(1), 365-374.
- 최승경, 길민찬, 김민신(2017), 여자 중· 고등학생 메이크업 실태 및 메이크업 행동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7(5) , 409-420.
- 최정순 (2015),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유진 (2007),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20, 30대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정 (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진원 (2011),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미영 (1997), 여성의 체형관리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비비드' 체형관리실 사례 분석,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홍주우 (1999),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윤조 (2005), 여고생들의 화장품 구매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sh, T. F., & Cash, D. W. (1982), Women's use of cosmetics: Psychosocial correlat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4(1), 1-14.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f Cosmetics on Self-esteem and Make-up Behavior of Female

Hye-Young Lim

Make-up Special Effect Make-up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f cosmetics on self-esteem and make-up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ology of the study was through questionnaires and reliability and accuracy of measurement components were proven.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f cosmetics were made up of 5 lower factors - being more active, higher confidence, being conscious of others, self-expression and joy from change. Make-up behavior was also made up of 5 lower factors - trend, synchronism, subjectivity, instrumentality and personal relations directivity.

Demographic variables analyzed included year of study, major, income per

month and cost of make-up per month.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95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area from 25th February, 2019 to 8th March, 2019.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 25.0, which includ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mograph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were in their 4th year of study. There was a relatively even distribution of majors, but still, most number of students were studying humanities. When income per month was examined, most number of students received 600,000 won per month, followed by 400,000–500,000 won per month. Most number of students spent less than 100,000 won on make-up per month.

Secondly, demographic factors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such as year of study, major, income per month and make-up costs per month were all different. In case of self-esteem, only positive self-esteem was effected by year of study and income per month, whereas other factors did not have an effect. In case of make-up behavior, year of study and major did not have an effect but income per month and make-up costs per month did.

Thirdly, in terms of reliability coefficient,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had 0.868, self-esteem had 0.892 and make-up behavior had 0.845, all of which shows high reliability.

Fourthly, whe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self-esteem and make-up behavior, self-expression, being

more active and being conscious of oth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was unrelated to make-up behavior, whereas negative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ynchronism only.

Fifthly, the effect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n self-esteem was examined under two lower factors -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Increase in confidence (a lower factor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was shown to have an effect on both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was also shown to correlate positively with joy of change.

Sixthly, the effect of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n make-up behavior was analyzed under 5 lower factors - trend, synchronism, subjectivity, instrumentality and personal relations directivity. Being conscious of others, self-expression and joy of change had a positive effect on trend. Being conscious of others and being more active had a positive effect on synchronism, whereas being more active, self-expression and joy of change had an effect on subjectivity. Being conscious of others also had an effect on personal relations directivity, and self-expression and joy of change had an effect on instrumentality.

Lastly, only negative self-esteem was shown to effect synchronism.

In conclusion,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a world of changing standards of beauty and trends, the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of cosmetics have negligible effects on self-esteem bu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ke-up behavior.

It was shown that self-expression, joy of change and being conscious of

others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in make-up behavior. This shows that many female university students use make-up to strengthen their social interactions and to express themselves, as well as using it as a tool for self-satisfaction and perceiving their social role. In other words, make-up behavior depends on social/psychological expectancy effects and it also reflects social meanings such as increasing self-satisfaction and social activity. However, many of the make-up behavior factors driven by others were shown to have negligible significance. This shows how social/cultural movements such as corset-free movement, which strives for freedom of beauty, having practical impact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부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학술적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적 처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부디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연구자: 임혜영
(bylim0901@gmail.com)

지도교수: 김경희 교수

I. 다음은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장을 하면 내향적인 성격도 다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2	화장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3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4	화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다					
5	화장은 나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6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이는 것 같다					
7	만나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장소에 따 라 화장 스타일을 바꾼다					
8	화장을 하면 마음에 의욕이 생긴다					
9	화장은 사회 생활, 대인관계 에서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화장을 한 내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11	화장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밝아진다					
12	화장을 하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13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14	화장을 하지 않고 타인을 만나는 것 은 실례라 생각된다					
15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 보이는 것 같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화장에 신경을 쓴다					
17	화장을 하면 나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18	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의 있어 보인다					
19	화장을 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안심이 된다					
20	화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된다					
21	화장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22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자신 있게 행동한다					
23	화장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다					

II.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현재 본인의 느낌과 가장 비슷하거나 일치하곳에 표시(√)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4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좋은 자질(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	때때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8	나는 대체로 실패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남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때때로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Ⅲ. 다음은 화장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메이크업 할 때 현재 유행하는 메이크업을 따른다					
2	메이크업은 곧 나의 개성표현이라고 생각한다					
3	친구와 주변 지인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면 똑같이 해보고 싶다					
4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메이크업 방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5	유행하는 화장품을 보면 사고 싶다					
6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데 품위 있는 메이크업은 도움이 된다					
7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8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내가 속한 집단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10	메이크업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11	메이크업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12	메이크업은 변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13	TV나 SNS에 나오는 모델이나 연예인의 최신 메이크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					
14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15	나는 친구들과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메이크업 제품을 선택한다					
16	메이크업 기술로 때로는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17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18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그들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신경 쓴다					
19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쓴다					
20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IV. 다음은 일반적 사항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학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④ 기타

3. 귀하의 한달 용돈(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30만원 미만 ③ 30만원~40만원 미만
④ 40만원~50만원 미만 ⑤ 50만원~60만원 미만 ⑥ 60만원 이상

4. 귀하는 외모관리와 관련하여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20만원 미만 ③ 20만원~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